

교회소식

- ▶ 환영:
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
주일 예배는 매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드려집니다.
- ▶ 행사:
03/03/24 (주일): 제직회, 남녀선교회 월례회
03/10/24 (주일): **썸머타임 시작 (주일 새벽 1AM → 2AM)**
당회/운영위원회
- ▶ 감사:
♥ 오늘 친교를 준비해 주신 이윤정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
- ▶ 알림:
◎ 교회 피택장로교육: 2/25, 3/3일
◎ 오늘의 양식(3-5월): 배부합니다.
- ▶ 합심기도 제목:
 1. 새 가나안 장로교회의 부흥을 위해서
 2. 김왕중: 새로 시작한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 하소서
김예림: 주님의 크신 은혜가 새 가정위에 늘 함께 하시고,
축복이와 가족들이 늘 건강하게 하소서
 3. 이윤정권사님: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소서
 4. Mr. Bob Purcell: 건강하여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하소서
 5. 하효경/지미경집사님:수술한 눈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소서

지난 주 헌금 드리신 분들	
십일조/주정/주일	이 천, 이크리스틴, 이장욱, 이정혜, 이영식, 이은경, 김병권, 김명숙, 하효경, 김종구, 김진경, 이윤정, 김정목, 지미경, 이노엘
감사헌금	
선교헌금	무 명

51권 8호 2024년 2월 25일

대한 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(PCIGA)

새 가나안 장로교회
NEW CANAAN PRESBYTERIAN CHURCH

2024년 교회 표어

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
네가 형통하리라

여호수아 1장 8절



담임목사: 이 천

시무장로: 이 장 욱
반주: 김진경

6338 N. Figueroa St. Los Angeles, CA 90042
☎ (323) 256-7575, www.ncnac.org

주일 예배

교독문 125 사순절(2)

12:30PM

인도: 이 천목사

경배와 찬양		다함께
기원		인도자
※찬송	260장 (통 194장)	다함께
※성시교독	교독문 125 사순절(2)	다함께
※신앙고백	사도신경	다함께
찬송	542장 (통 340장)	다함께
대표기도		김명숙집사
오늘의 말씀	마태복음 22:11~14	인도자
찬양		이장욱장로
설교	혼인잔치의 비유	이 천목사
기도		설교자
찬송	449장(통 377장) 1,5절	다함께
헌금		하효경집사
※봉헌찬송	634장 (통 70장)	다함께
※봉헌기도		인도자
교회소식		인도자
※인사		다함께
※찬송	54장 (통 61장)	다함께
※축도		이 천목사

※표는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

봉사와 섬김					
#	구분	대표기도	찬양	헌금위원	친교
08	02/25/24	김명숙	이장욱	하효경	이윤정
09	03/03/24	하효경	김병권/김명숙	지미경	이영식/이은경
10	03/10/24	이장욱	하효경	김명숙	
11	03/17/24	김병권	이정혜	하효경	
12	03/24/24	이정혜	하효경	지미경	

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

◎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

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

◎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

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

◎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고

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

◎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

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

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

◎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

기도하리로다

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

◎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

다니나이까 하리로다

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

◎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

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

◎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그가 나타나

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

찬송하리로다. 아멘

성경말씀: 마태복음 22:11~14

- 11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
- 12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
- 13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
- 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. 아멘